

# 강진군, 시설 화훼농가 공기오염 노출 검진 시범적용

### 온실 내 공기오염에 따른 보건 역학 연구대상 선정...건강검진 실시

####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팀 협조요청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강진군은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에 직면하고 있는 시설화훼 재배 농업인들이 보건 역학 조사 연구대상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시설화훼 재배 농업인 48명이 참석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호흡기계, 면역기계, 알레르기, 미세먼지 노출수준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미세먼지 농작업자 영향 실태조사 및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작업안전보건팀의 협조요청으로 실시하게 됐다.

농업인들의 검진에는 연구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면역전문기들이 맡아 진행했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처리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 및 예방수칙 준수 하에 실시됐다.

시설하우스 내 작물재배시 방제 작업, 토양관리작업, 비료투여작업, 선별 작업 등 여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공기오염이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보건상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설하우스내 유기분진 독성증후군과 농부폐증, 직업성 천식 등을 농업인의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분류하고 연구 및 관리중에 있다.

국내에도 최근 미세먼지가 관찰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관련 연구와 함께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대책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군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시설화훼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관내 조경수 재배 농가 소통간담회 개최

### 정종순 군수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위해 현장 소통”



장흥군은 7일 관내 조경수 재배 농가와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통간담회는 정종순 장흥군수,

관계 공무원, 조경수 재배 농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조경수 재배 농가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

을 수렴하여 어려움을 공감하고 극복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장흥군은 관내에서 재배하는 조경수 재배 농가에 대해 구매했던 조경수 재배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경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관내 조경수 재배 현황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및 개진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소통간담회를 통해 조경수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잡았다”며 “조경수 재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꾸준히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 해남군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

### 해남읍 북평지구 등 2개소, 실시간 주민대피 활용

해남군은 관내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비 7억원(국비 50%)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해남읍 북평지구와 화원면 인지저수지 2개소를 대상으로, 감우량계, 변위계, 수위계, 옥외 무선방송 시스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등 스마트계측시

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주민대피에 활용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마을 상류부에 위치한 재해위험지구로,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꼽혀왔다.

군은 최근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미정비 재해위험지구에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2020년 한국판 뉴딜 정

부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건의해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시설물 정비 등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 대피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재해 예방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게 됐다”며 “첨단 과학기술 기반 예측, 분석, DB 축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 “여름휴가는 청정 완도로 오셔서 전복·광어 드세요”

### 보양식 수요 많아 전복 수요 ↑ 타지역比 광어 양성 상태 좋아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전복 산업이 점차 출하량이 증가하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를 보면, 완도군의 6월 전복 출하량은 1,710톤으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다.

이는 산지에 출하 가능한 전복이 많고, 초복과 중복 등으로 인해 보양식 수요가 많아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군은 수산물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말복을 앞두고 완도군 특산물 소평물인 ‘완도군어숙’에서 활 전복 1kg 당 12~13마는 3만 7천원, 15~16마는 3만 4천원, 18~20마는 3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택배비는 무료이다.

전복은 타우린과 아르기닌 성분

이 풍부해 원기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름 보양식으로 전복만한게 없다.

해양수산부에서는 8월 이달의 수산물로 ‘바다에서 나는 산삼, 전복’을 선정했다.

전복도 좋지만 완도 명품 광어도 맛이 뛰어나 완도의 대표 수산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완도 광어 출하량은 장마 및 여름철 기온 상승 등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로의 관광객이 늘고 휴가철을 맞아 광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 상태는 제주 및 타 지역에 비해 완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 해양수산 국민 인식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광어(6.3%)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광어는 육질이 탄탄해서 쫄깃하고 달짝지근해서 맛이 좋은데 다비타민B12가 들어 있어 빈혈 예방과 오메가3, DHA가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값이 저렴한 편이고 양식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맛볼 수 있어 국민 횡감으로 꼽힌다.

완도=김광수 기자

## 진도군, ‘휴가철 SNS 관광지 인증샷 이벤트’

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진도군 여름 휴가 관광지 인증

샷 이벤트’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도타워, 윤림산방, 진도계떼마파크, 세방낙조 등 주요 관광지를 마스크를 쓰고 방문하여 인증샷을 촬영 후 진도군 카카오톡 ID 검색

하여 인증샷을 전송하면 된다.

특히 관광지 명소 3곳 이상을 촬영 후 응모하면 이벤트 당첨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인증샷을 발송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40명의 당첨자를 선정하고 진도 읍금 가공제품(1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진도=조상용 기자



#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